

5·18 35주년 ‘반쪽 기념식’ 올해도 되풀이 우려

행사위는 옛 도청앞서, 정부는 5·18묘지서 치를 듯
‘임을 위한…’ 같든 여파…시민들, 대통령 결단 촉구

가장 성대하게 치러도 모자랄 제 3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두 곳에서 나눠 치러지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의 부정적 인식 등 5·18

홀대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18 민중항쟁 35주년 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오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5·18 기념식에 불참하는 대신,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5·18

기념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34주년 기념식이 국립묘지와 구묘역에서 나눠 치러지긴 했지만 올해처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치러진 적은 없었다.

앞서, 행사위는 지난 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을 요청하는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년도와 같이, 기념식에 불참하고 국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벌써 5·18 35주년 기념식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5·18 직접피해 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뿐 아니라 올해 총리가 물러나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사상 초유의 대통령·총리 모두 참석하지 않는 국가 기념식이 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5·18이 국가기념일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나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

는 기념식의 취지를 감안, 5·18 기념식에 대한 참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 정도(38)씨는 “유족들이 5·18 기념식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5월 정신이 화합·단결인데, 오히려 갈등과 반목으로 비쳐진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실의 없는 싸움에서 벗어나 실리를 되찾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 행사위는 11일 오전 광주 YMCA에서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기웅기자 pboxer@

홍북학원 또 법정 분쟁

임원 승인 취소 이사 9명
광주시교육청 상대 소송
교육청은 교장 직위상실 통보

홍북학원 이사들이 광주시교육청의 홍북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홍북학원 설립자 이흥하 씨를 비롯, 학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북학원 임모 이사장 등 9명은 지난 1일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한편, 교육청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학교법인 홍북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청문회’를 거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홍북학원 이사 10명 중 9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육부에 임시 이사 파견을 요청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청은 또 지난 8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홍북학원 측에 산하 여교장들에 대한 ‘교장·교사 직위 상실과 급여 중단’ 등을 통보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도 알려 2년간 지급된 보수 등 급여 회수 방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사립학교법 위반을 들어 학교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홍북학원 산하 여교장에게 ‘학교장 지위 상실’을 통보한 것과 관련, 홍북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백희준기자 bhj@

5·18묘지 잇단 추모 받길

이달들어 1만7706명 참배

5·18 민중항쟁 35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잇따르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0일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일반인·외국인 참배객 등 방문객은 1만770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2000명 선이다.

매년 5월 한 달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추모객의 20%를 차지했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급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하루 5군데 이상의 단체가 매일 찾아오는 등 단체 참배객의 방문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관련

국세청 출신 세무사 영장 기각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세무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원목 판사는 10일 건설사 탈세에 대한 형사 고발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속했을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중흥건설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해 범죄 조사를 이은 형사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려는 건설사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갹권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은준기자 ejkim@



지난 9일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115명의 중·고교생들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광장’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중·고생들의 5·18 메시지…52m 벽화에 담긴 민주·인권

5·18묘지 광장 담벽에 그려

청소년들이 전하는 ‘5월 메시지’가 국립 5·18 민주 묘지로 가는 길 벽면에 새겨졌다. 5월 역사 왜곡과 폄훼의 시선이 아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의 진실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하는, 1980년 5월을 겪어보지 못했던 학생들의 바람을 담았다.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들 중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115명은 9일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광장 담벽 앞에서 벽화 그리기에 나섰다. 주제가 정해진 게 아니지만 학생들의 손놀림으로 채워진 담벼락(52m)에는 민주·평화·인권 등을 연상할만한 ‘오브제’가 적지 않았다.

오전부터 시작한 벽화 그리기는 오후 4시가 다되도록 계속됐다. 맘으로 흠뻑 젖은 학생들의 벽화 그리기를 보던 참배객들

은 “고생한다, 화이팅”등을 외치며 응원하는가 하면,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을 사서 건네주기도 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측은 “추모객들이 편히 둘러볼 수 있도록 구역 곳곳의 모습으로 벽화를 꾸미도록 했다”

고 말했다.

민의진(18·수완고 2년)양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의미를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며 “참배객들이 왜곡된 시선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서울·광주 언론인 등 ‘5·18과 언론’ 주제 16일 심포지엄

광주전남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 해직언론인협회가 ‘5·18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 오후 4시 5·18기념재단 전시실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5·18 보도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서울과 광주 지역 언론인간에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

했다.

서울 지역 전·현직 언론인 80여 명과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 30여 명 등 1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정민 전남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안중철 박사가 ‘5·18 역사왜곡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고승우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세월호 참사 발생

바친 광주 시민들의 진실을 느끼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역사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인식도 바뀌질 않는 상황에서 ‘5월’이 왔다. 주먹밥을 닮은듯한 순백의 ‘이팝’ 나무 꽃잎과 어린 학생들의 메시지가 더해진, ‘묘지로 이르는 길’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이때문일까. /박기웅기자 pboxer@

후 1년 동안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안중철 박사는 “80년 당시 계엄사가 보내준 보도자료를 검증없이 보도했던 언론이 지금도 일부 보수주의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언론이 5·18에 대한 역사왜곡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도해야 한다”며 심포지엄 취지를 말했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경찰에 ‘기술’ 전 격투기 선수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술’을 선보인 20대 이종격투기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

○…1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종격투기 선수인 A(28)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전화 통화하던 행인 2명을 폭행하다 신고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 소속 경찰관(32)에게도 육살하고 넘어선 뒤 뺨과 무릎을 밟아 1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공탁한 점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감안,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김지욱기자 dok2000@

부동산 경매! 특수 물건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 1대1 실전 개인 전수
- ✓ 주 1회 3개월 교육
- ✓ 교육 / 임장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등
- 2200만원
-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 자금 - 1억원 이상
- ✓ 기간 - 1년 정도
- ✓ 수익 - 연 20% 정도
- ✓ 방식 - 3대1 방식
- ✓ 보장 - 소유권 이전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1억원 이상
-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 ✓ 낙찰물건에 80~90% 정도
- ✓ 기간 - 상담 후 결정
- ✓ 이자 - 연 10~12% 확정

특수비법 전수하고 활동하고 계신분들!

- 건설회사 사장
- 석재공장 사장
- 제조업 사장
- 전, 은행 지점장
- 가정주부
- 장례식장 사장
- 전, 경찰서 서장
- 전, 도청 직원
- 공인중개사
- 기아자동차 직원
- 광주대학교 학생
- 오회화장품 이사
- 전, 소방서 서장
- 아주커 치킨 사장
- 경매학원 원장
- 입시학원 원장
- 채권회사 부장
- 주유소 직원
- 명품회사 사장 등 다수
- 상담시 오픈합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상담예약 요망)